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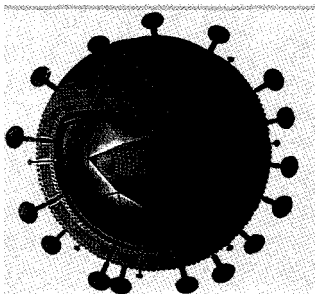
에이즈 예방치료 눈앞에

에이즈를 예방하는 백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였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뛰어난 면역력이 확인됐다.

한남대 미생물학과의 배용수교수팀은 소아마비 백신용 바이러스에 에이즈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에이즈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에이즈 바이러스에서 유전자만 뽑아낸 뒤 소아마비 백신 제조용 바이러스에 붙여서 실험용 쥐에 투입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소장 점막에서 빠르게 증식하면서 에이즈 유전자를 떼어놓으면 이와 거의 동시에 면역체계가 작동하면서 임파구들이 대거 불러와 에이즈 바이러스와 싸우고 이때 에이즈 항체가 생겨난다.

이 에이즈 항체는 2주 후부터 면역력이 조금씩 강해져 6주 후에는 면역력의 기준이 되는 중화력



이 128에 이르렀다. 중화력이 8이면 에이즈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에이즈 백신의 면역력이 대단히 뛰어남을 알 수 있다.

배용수 교수는 영장류 실험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을 적용할 경우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면역 유동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에이즈 바이러스 연구가인 독일의 홈스만 박사도 배 교수팀의 연구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언제든지 동물실험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곧 독일 국립영장류연구소와 함께 사람 외에 유일하게 에이즈에 걸리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효능과 안전성 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또한 유전자 백신 기법을 이용하면 에이즈 치료용 백신의 개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MBC뉴스 '99/06/18)

콘돔 사용량 늘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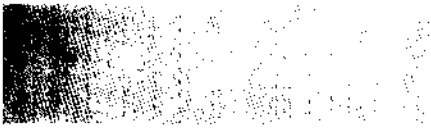
에이즈(AIDS)와 각종 성병을 막으려면 한해 240억개의 콘돔(15~59세 남성 대상)이 사용돼야 하지만, 실제 사용량은 60억~90억개에 불과하다고 지난 5월 18일 미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학원의 '인구보고서'가 밝혔다.

이 대학원이 세계 각국의 통계에 기초해 추산한 콘돔 사용 부부는 지구상에 모두 4,400만쌍. 대부분 가족 계획의 일환으로 사용된다.

보고서는 그러나 각국 결혼 남성의 비율 및 배

우자와의 성관계 빈도 등을 고려했을 때 매년 30억개가 사용돼야 하며, 유부남의 혼외 정사에 추가로 한해 38억개가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가 절실한 대상은 미혼남성으로, 에이즈-성병 예방에 필요한 전체 콘돔의 71%에 해당하는 170억개가 한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이미 1,400만명이 사망하고 매일 1만 6,000명이 신규로 감염되는 에이즈 확산을 막으려면 콘돔 사용이 절실하며, 사회적으로 보다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콘돔의 이미지 개선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30여개국에서 사용중인 여성용 콘돔도 '92년 이래 3,000만개가 팔렸으며, 미국의 한 대표적인 제조업체의 경우 '97년 10월 ~ '98년 4월 사이에 420만개(전년 동기 130만개)가 팔리는 등 계속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다.(조선일보 '99/05/19)

양육권 뺏긴 에이즈감염 아기엄마

에이즈 환자 어머니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것을 고집하다 양육권을 박탈당한 뒤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여 양육권이 오리건주 당국으로 넘어갔다. 결국 부부는 얼마전 '모유를 먹는다고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다'며 양육권반환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아기에게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주정부 증인으로 나온 의사들은 '상행위보다 에이즈 보균자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증언했다. 아기 펠릭스는 현재 에이즈 음성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는 법정에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유를 먹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 '99/04/21)

유엔·아프리카 5개국, 에이즈 퇴치사업 1억달러 투입

유엔과 아프리카 5개국 정부는 5월 6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해 1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엔의 한 에이즈 담당 관리는 '안전한 미래'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사업은 여성 및 어린이 에이즈 환자의 치료와 의학 연구,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3천400만명의 에이즈 감염자중 약 3분의 2가 전세계인구의 10% 밖에 안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동아일보 '99/05/07)

HIV 기원은 침팬지-아프리카 사냥꾼에 의해 확산

앨라배마대학 Hahn교수는 최근의 보고서에서 전세계 에이즈 대부분의 원인인 HIV-1이 적도 서아프리카에 생식하는 침팬지의 아종(亞種)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Hahn교수팀은 HIV 감염혈액과 접촉한 사냥꾼에 의해 HIV가 인류에 전염된 것으로 추측하고, 특히 서아프리카에서는 침팬지를 식용으로 포획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지견에 따라 HIV-1이 유인원의 바이러스에서 유래한다는 연구자의 추측이 확인됐다. 교수팀은 침팬지의 원숭이변역부전 바이러스(SIV)와 HIV-1의 유전자 배열을 분석한 결과 HIV-1의 보유숙주는 침팬지의 아종이라고 결론내렸다.

Hahn교수는 침팬지는 사람 유전자와 98.5%가 동일하지만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발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람이 대응하지 않은 감염에 침팬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다면 보다 합리적인 HIV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Medical Tribune '99/05/07)

AIDS, 전세계 사망원인 제4위

에이즈가 전세계 제4위 사망원인으로 조사됐으며, 설해를 추월해 가장 높은 전염성을 기록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

에이즈 바이러스(HIV)는 작년 전세계에서 228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11일 AP통신이 WHO 연례보고서 발표 내용을 전했다.

에이즈, 발작, 호흡기 질환 등 3대 사망원인은 97년 조사된 순위와 같고, 남녀 모두에게 고루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선일보 '99/05/12)

의정부시, 에이즈 보균자 7명 확인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7명이 최근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돼 특별관리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지난 5월 27일 호원동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 1명이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지나 에이즈환자로 진행중이며 나머지 20-30대 남자 6명은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에 따라 이들 환자들을 수시로 면담,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남자 보균자들은 대부분 동성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소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HIV감염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문화일보 '99/05/27)

태국 에이즈 고아 급격히 증가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에이즈로 사망해 에이즈 고아의 숫자가 최근 태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5월 29일 내이션지가 보도했다.

태국 보건부는 에이즈에 감염된 부모에게서 태어난 고아의 숫자가 2000년경에는 1997년의 4만 4천4백69명의 2배인 8만6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1984년부터 수집된 태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태국내 90만 여명 이상이 HIV에 감염되었다.

한 고아원 원장은 AIDS에 걸린 고아들은 특별히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은 직원들을 두어 설비를 주의 깊게 소독해야 하며 이들에게 AZT와 같은 값비싼 약품들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바티보다 병원의 에이즈 고아를 담당하고 있는 사옴폰 시리나빈 박사에 따르면 AIDS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두려움이 비감염된 고아들까지 고

아원으로 내몰고 있다고 한다.

태국정부는 AIDS 고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나 연인들을 대상으로 결혼전과 임신당시의 건강검진을 통해 에이즈를 방지하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중앙일보 '99/05/31)

동성애자 대사로 임명 -호멜 특목셈부르크대사



자타가 공인하던 동성애자 제임스 호멜(65)이 6월 5일 마침내 대사로 임명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97년 특목셈부르크대사로 선정됐었으나 동성연애자란 이유로 상원인준이 거부됐던

그를 의회가 휴회기간일 때는 인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이용, 기습적으로 임명했다. 그는 시카고대학 학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친민주당 파로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대표를 역임하고 지난 96년에는 유엔총회 미국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다니며 에이즈방지 운동에도 앞장서 온 인물이기도 하다. (대한매일 '99/06/07)

HIV 감염자 스트레스 땀 에이즈 급속 이행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사회적인 자원을 받지 못하면 급속히 에이즈로 이행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대 정신과 전문의 제인 레서먼박사는 연구보고서에서 HIV 감염자가 평균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에이즈로 이행되는 속도가 2-3배 빨라진다고 밝혔다.

레서먼 박사는 HIV에 감염된 남자 82명을 5년

만에 걸쳐 관찰한 결과에서 나타난 이 사실은 정신사회적 변수가 HIV의 진행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HIV 감염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며 에이즈는 생물학적인 측면에 보다 신경을 써야겠지만 정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 '99/05/25)



에이즈 환자 충치치료 거부는 위협

미국 대법원은 5월 24일 에이즈 환자에 대한 충치 치료 거부는 민권에 관한 연방법률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에이즈 환자의 충치 치료요구에 대해 『내가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진료를 거부한 치과의사 랜든 브래그던의 상고심에서 “장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브래그던은 지난해에도 이 사건과 관련, 상고했으나 당시 대법원은 『환자가 비록 에이즈 발병의 징후가 없더라도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는 장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브래그던의 에이즈 감염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항소

법원에 되돌려 보냈으며 항소법원은 그후 『문제의 환자에 대한 충치 치료는 의사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노출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조선일보 '99/05/25)

어린이·청년 사망원인 50%가 전염병 -90%는 에이즈·폐결핵 등

세계의 어린이, 10대 청년근로자들의 사망원인 중 50%가 전염병이며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6월17일 밝혔다.

WHO 보고서는 이 중 90%는 에이즈, 말라리아, 폐결핵, 홍역, 설사, 급성호흡기질환 등 6가지 전염병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WHO는 전염병을 막는다는 1인당 20-35달러 정도밖에 들지않는데도 이 6가지 전염병으로 작년 한해동안 세계적으로 1천100만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이는 각국 정부가 전염병 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전염병은 해외여행이 쉬워지면서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전염병균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커지면서 유럽에서는 폐결핵, 아프리카에서는 임질같은 전염병의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어 에이즈의 경우 치료제는 매우 미싸지만 1년치가 14달러에 불과한 콘돔을 쓰면 막을 수 있으며 말라리아는 살충제가 뿌려진 10달러 짜리 모기장만 있으면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 '99/06/19) A